[1976년 11월 1일 창간]

「인터넷대동족보」 개통 기념 특집호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1면]

〈宗 訓〉

忠孝 · 德禮 · 勤謹 · 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어다.

淸州韓氏報

發 行 人 韓 甲 洙
編輯人兼主 幹 韓 東 元
印 刷 人 韓 範 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전면 개통

분량 · 기능 · 디자인면에서 국내 최고 평가

중앙종친회(회장 甲洙)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구축한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가 마침내 2013년 2월 10일(음력 1월 1일) 음력설을 기해 전면 개통되었다. 2004년 5월에 편찬사업이 시작된 이래 1 · 2 · 3차에 걸쳐 8년여만에 이룩한 값진 쾌거(快擧)이며, 후손들에게 영원히 자랑스럽게 승계될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번에 구축된 청주한씨 「인터넷대동족보」는 기존의 「6교대동족보」와 신규로 접수된 입보자를 모두 수록 할 경우 약 70,0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량면에서나 기능면,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최고를 자랑할 수 있는 「인터넷대동족보」가 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주한씨 「인터넷대동족보」는 기능면 뿐만 아니라 디자인면에서도 가장 앞선 「인터넷족보」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휴대폰)족보」도 개통되어 족보와 한자를 잘 모르는 젊은 후손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족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D족보는 흘러간 구식매체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성씨는 약 286개이며, 각 성씨를 본관으로 구분해 보면 4,180여 본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4,180여 본관 중 종친회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200곳 내외이며, 「인터넷족보」를 구축한 종친회는 약 100곳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해김씨, 전주이씨, 밀양박씨, 경주이씨, 광산김씨 등 큰 문중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파별로보책(譜冊)이나 「인터넷족보」등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가 국내 최대 분량의 족보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능면이나 디자인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이다.

제3차 사업 수단접수 4만2,183명

제 1·2차 사업 때 비해 월등한 실적 평가

편찬팀, "교정기간 중 수단신청하면 접수"

중앙종친회가 추진해온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 10일까지 8개월여 동안의 제3차 사업기간 중 4만2,183명의 수단을 접수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4년 5월부터 4년 10개월동안 추진된 제1차 사업 때의 수단신청자 2만6,961명, 2009년 3월부터 1년6개월동안 추진된 제2차 사업기간 중의 2만5,424명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거둔 월등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편찬팀은 올 가을의 중추절(추석)에 맞춰 계획하고 있는 보책(譜冊) 발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인터넷대동족보」수정기간동안 수단신청을 하면 가급적 최대한 접수하기로 했다.

제3차 편찬사업기간 중 수단신청에 참여한 주요 35개 종파문중의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문정공파가 9,520명으로 가장 많은 수단신청을 한데 이어 공안공파에서 4,625명, 판서공파(청원위)에서 3,180명, 문양공파에서 2,981명, 검교참판공파에서 2,942명, 안양공파에서 2,824명, 감사공파에서 2,093명, 충성공파에서 1,562명, 참판공파에서 1,434명, 양혜공파에서 1,404명, 장간공파에서 1,334명, 몽계공파에서 1,044명, 장도공파에서 941명의 수단이 신청되었으며, 수백명의 수단을 신청한 일부 종파에서는 종파 종원수 대비 80~90% 이상의 신청율을 올리고 있어 신청인원이 많은 종파문중과 함께 참여도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중앙회는 당초 예정대로 지난해 11월말까지 수단접수를 마감한 후 올해 2월 10일의 음력설까지의 개통을 목표로 「인터넷대동족보」 구축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1월중에도 수단신청을 접수한 결과 7,000명 이상의 일가들이 수단신청을 해왔으며, 편찬팀은 보다 충실한 「인터넷대동족보」의 완성을 위해 개통 이후에도 계속 수단신청을 홍보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는 또한 개통된 「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희망하는 일가들에 한해 신청을 받아 올 가을의 한가위(추석)에 맞춰 보책(譜冊)으로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및 파보(派譜)를 발간할 예정이며, 이 보책이 보책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인터넷대동족보」에 빠짐없이 수단신청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올해는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원년"

"상반기 중에 휴대폰 족보도 개통 예정"

甲洙중앙회장 담화

한글과 한자를 병기(倂記)한 청주한씨 최초의 「인터넷대동족보」가 8년여의 각고(刻苦)끝에 2013년 2월 10일(음력 1월 1일) 음력설에 맞춰 전면 개통되었으며, 올 계사년(癸巳年)은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개통 원년(元年)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우리 세대(世代)가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이룩한 값진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명문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뿌리를 바로 알게하고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적인 유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세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는 이와같은 추세에 발맞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휴대폰)족보」로도 개통되어 족보와 한자를 잘 모르는 젊은 후손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족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CD족보는 흘러간 매체(媒體)로 사실상 얼마 가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는 현재까지 국내 280여 성씨 중 가장 분량이 많고 기능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도 가장 앞선 「인터넷족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CD파보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인터넷대동족보」에 수단을 신청하지 않은 일가들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어려운 처지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주한씨는 명문이라는데 우리 가문은 왜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에 등재되지 않았느냐"고 후손들이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난해 11월 말로 수단신청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만 음력설에 맞춘 개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올해 1월중에 신청한 수단도 접수되었고, 개통후에도 몇 개월의 교정기간을 거치는 동안 수단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방향으로 편찬팀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수단신청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며, 진취적(進取的)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인터넷대동족보」가 마무리되면 ①청한장학기금 35억원(현재 조성되어있는 장학기금은 약 24억원) 조성 ②각 종파문중 및 광역시 · 도종친회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소통 ③청장년회 조직의 확대와 활설화 ④빈약한 중앙종친회 재정의 개선 등 역점을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부(10억원)와 충북도(15억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조탄생유지인「淸韓閣」으로 진입하는 난곡리 진입도로와 난곡교 확장 및 포장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여세를 몰아 우리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를 명실상부하게 국내 성씨 중 가장 모범적이고 이뜸가는 새 시대의 「인터넷족보」로 완성한 후 이어서 계획했던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일가들께서 빠짐없이 수단신청에 참여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주한씨 후손들은 명문의 후예
「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수단 올려
후손들 정체성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사진 왼쪽은 시조 위양공(威襄公 · 諱 蘭)할아버지의 영정.
▶오른쪽 위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시조묘소.
▶오른쪽 아래는 시조탄생유지를 성역화한 「淸韓閣」 전경

청주한씨는 명문 중위 명문이다. 시조 위양공(威襄公 · 諱 蘭)은 고려의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으며 벼슬은 문하태위(門下太尉 · 오늘날의 국무총리급)에 오른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이후 고려조에서 세 왕비, 수 많은 상신(相臣: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과 대제학(大提學)을, 조선조에서는 신의왕후(神懿王后)를 비롯하여 6명의 왕비와 13명의 상신, 25명의 공신(功臣), 4명의 부마(駙馬 · 임금의 사위)를 선조로 모셨고, 현세에도 연속적으로 3명의 국무총리가 탄생하는 등 한문(韓門)을 빛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조선조 인조 때 문신 좌의정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는 "세세로 끊임없이 혁혁한 업적을 이어 오면서 오래 갈수록 더욱 더 번창한 가문은 바로 청주한씨가 제일"이라고 극찬했으며, 선조때 문신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은 "태위공 란(蘭)이 고려 태조를 보필하여 삼한(三韓)을 통합하고 개국공신의 호를 받은 이래 자손이 번창하여 700여년 동안 공후장상문학무공(公侯將相文學武功)이 배출되기 13대를 연면계속(連綿繼續)하니 명문귀족을 차례로 따져 보아도 이보다 앞선 문벌이 별로 없으리라"고 한씨 가문을 극찬했다.

이와같이 청주한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이다. 이 명문의 위대한 시조를 뿌리로 하여 이어져 내려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훌륭한 분들을 조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청주한씨대동족보」는 명실공히 「명문족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문족보」에 수단(收單)을 올리지 않고는 명문의 후손임을 자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명문족보」에 이름이 올라야 명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빠짐없이 「인터넷대동족보」에 수단을 올려 우리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알고 명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은 앞으로의 후손세대에게는 필수적인 매체(媒體)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대동족보」개통 기념 특집호 발행

본 종보(宗報)는, 중앙종친회가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글과 한자(漢字)를 병기(倂記)하여 구축(構築)한 청주한씨 최초의 「인터넷대동족보」를 2013년 음력설(양력 2월 10일)에 맞춰 전면 개통한 경사(慶事)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 호수(號數)를 따르지 않고 호외(號外)로 발행하는 특집호(特輯號)입니다.

따라서 본 특집호에는 「인터넷대동족보」와 관련된 기사만을 게재하였으며, 종사(宗事)와 관련된 여타의 모든 기사는 발행 호수에 따라 3월 중에 발행될 종보 223호에 게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업데이트

기존의 「인터넷대동족보」와 추가로 접수된 수단(收單)을 바탕으로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교정본(校訂本)을 확인한 후 오자(誤字)나 탈자(脫字)가 있는 일가분들께서는 수정한 내용을 중앙종친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찬팀)

바로잡습니다

지난 1월에 발행된 종보222호 3면에 게재된 「조상님들의 시향일」중 잘못 보도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관계문중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편집자)

▲문간공(文簡公 · 諱 尙敬 · 12세) 시향일은 음력 3월 7일 입니다.
▲감사공(監司公 · 諱 碵 · 13세) 시향일은 음력 10월 5일 입니다.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인터넷대동족보」 한자만의 6교대동보 · CD파보와는 큰 차이

아래는 「인터넷대동족보」와 한자만으로 된 「제6교대동족보」의 비교

清州韓氏 第六校 → **第七校**

一世 蘭

佐高麗統合三韓開國壁上功臣三重大匡門下太尉謚威襄公誕生于忠北永同郡黃澗邑蘭谷舊土汗里一云吐蘭里遺基與講堂遺址尚今有傳事載永同郡誌移居于清州治東方井里服田力穡積穀累萬後唐天成三年戊子高麗太祖征甄萱路出宅前公杖劍出迎以濟一日之餉遂從以驅馳贊成統合之勳輿地勝覽錄公于清州人物
配宋氏 墓清州治南十五里許南一面駕山里乾坐坤申得水辰破合兆遺基遺宅俱爲屢世失護忠成公明澮一時尋得遺基設壇致祭百有餘年後又失傳宣祖乙巳後孫百謙爲清州牧使亦尋遺基設壇立碑其弟西平府院君浚謙撰遺基碑築壇行歲一祭方井里東便現雲東里後麓碑石尚存光海十年戊午後孫震英尋得遺基誤傳墓在嘉山蓋嘉駕同音而麗相希愈墓在嘉山故也肅宗戊辰後孫根爲清州兵使時後孫聖

一世 蘭 란

고려태조(太祖)를 도와서 삼한을 통일했으므로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 되었다 벼슬은 삼중대광문하태위(三重大匡門下太尉)며 시호는 위양(威襄)이다
공이 충북 영동군 황간읍 난곡(蘭谷 土汗里 또는 吐蘭里)에서 탄생했는데 살으시던 터와 강당(講堂)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으며 영동군지에 등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살다가 청주읍 동쪽 방정리(方井里)로 이사해 살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 곡식 수만석을 했는데 후당천성(後唐天成)三年 무자(戊子)에 고려 태조가 견훤를 토벌할때 공의 집앞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지라 공이 칼을 짚고 나가 환영하며 하루동안 먹을 군량미를 제공하고 드디어 종군하면서 통합하는데 도와서 공을 이루었다

清州韓氏 第六校 → **第七校**

十四世 繼禧

謝 奇 渥 公義
脩 尚敬 惠

字子順
世宗五年癸卯九月四日生辛酉進士丁卯增廣文科選集賢殿正字常兼經筵春坊諫院藝文館直提學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封西平君成宗壬寅閏八月十九日卒享年六十 贈大匡補國崇祿大夫領議政謚文靖道德文章冠冕一世歷事三朝際遇昭融再策勳名累掌詮衡事業隆赫 蒙不祧之典輿地勝覽錄公于清州人物
配貞敬夫人咸陽呂氏佐郎 贈叅判稽女青松沈義龜外孫乙亥五月十五日卒 墓廣州秋峴靈長山申坐公墓上下兆今城南市栗洞四佳徐居正撰神道碑銘 齋名永慕齋
謹按公之廟基重建于水原雙阜坪田洞嫡長孫所居矣 高宗壬申遞奉於士武 十四世孫敬源
舊碑之建歲久剝落不可復識故謹因其舊文而改刻貞珉且以舊在墓前難於廣示故今再建于一里許相向貯池上大路邊現城南栗洞乙卯十月日謹[illegible]

十四世 繼禧 계희 一卷 一〇
脩-尚敬-惠

자(字)는 자순(子順) 세종(世宗) 5年 계묘(癸卯 서기 1423) 9월 4일生 신유(辛酉)에 진사(進士) 정묘(丁卯)에 증광문과(增廣文科=증광은 정규과가 아닌 별과)에 합격해서 집현전 정자(正字)에 선발되어 경연관과 사간원을 거쳐 예문관·직제학을 역임했으며 추충정난익대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으로 숭록대부·의정부·좌찬성(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에 올라 서평군(西平君)을 봉했다 성종 임인(成宗壬寅 서기 1482) 閏 8월 19일에 卒하니 향년이 60이다。 대광보국·숭록대부·영의정(大匡補國崇祿大夫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다。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다 도덕과 문장이 당세에 제일이었고 세 임금을 섬기며 임금님의 높은 대접을 받았으며 두번이나 공신에 책봉되었고 누차 전형(銓

아래 사진과 같이 「인터넷대동족보」에는 가족사진을 비롯하여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등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인터넷족보」를 통해 조상들을 만날 수 있다.

二十八世 子 光源 광원
生父 鎭文
호(號) 백양(白羊) 1903년12월9일生 1971년2월13일卒 ㊐광석면 중리 선영(先塋) 아래 을좌(乙坐) 2001년10월4일 대전시 유성구 방동(芳洞) 山103-1 선유봉(仙遊峰) 뒷 기슭 해좌(亥坐)로 이장(移葬)
配 강화최홍득(江華崔弘得) 父는 종원(鍾遠) 1906년6월29일生 1991년7월3일卒 ㊐대전시 유성구 방동(芳洞) 山103-1 선유봉(仙遊 … 와

二十九世 子 孝東 효동
호(號) 해정(海丁) 1927년6월17일生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最高) 관리자 과정 수료 1982년 6월 임 총경(任總警) 강경·대전 서부경찰서장 역임(歷任) 대전·충남 재향경우 회장 대전·충남참전경찰 유공자 회장 제10대 대전 충남 종친회(宗親會) 회장 중앙 종친회 부회장(副會長) 고문 청한장학회(清韓奬學會) 이사 목사공(牧使公) 세마공(洗馬公) 종회장(宗會長) 역임(歷任)

29世 효동 　 배 양채호

三十世 子 允愚 윤우
1953년6월6일生 한양대학교 졸업 학사(學士) 제일해상화재보험회사 영등포 지점장(支店長) 본사 영업 부장 역임(歷任)
配 연안송혜경(延安宋惠卿) 父는 두환(斗煥) 1954년5월28일生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학사(學士)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미용실 주임 역임(歷任)

三十世 子 一權 일권
1955년2월27일生 충남대 행정 대학원 수료 석사(碩士)

가족사진

三十一世 子 基薰 기훈
1980년11월26일生 서울대학교 미술대 및 대학원 서양회화과 졸업 석사(碩士)

三十一世 女 美燕 미연
1982년8월16일生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4학년 재학

三十一世 子 基太 기태
1994년2월7일生 카톨릭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과

二十八世 子 水元 수원
일명(一名) 석구(錫九) 1915년5월30일生(陰4월7일) 2000년9월15일卒 ㊐안동시 이천동 산187의4 납골묘원
配 의성김분례(義城金粉禮) 父는 수준(秀俊) 1920년4월12일生(陰3월9일) 1997년10월30일卒 ㊐합장(合葬)

28世 韓 석구 부부

二十九世 子 熙燮 희섭 양인(密陽人)
1939년1월15일生(陰11월13일)
配 안동권금숙(安東權錦淑) 父는 성익(性益) 1938년2월7일生(陰1월8일)

二十九世 子 益燮 익섭
1943년(陰2월1[illegible])

三十世 子 相訓 상훈
일명(一名) 성수(成洙) 1961년2월7일生(陰12월29일) 한양대학교 졸업
配 영양남경란(英陽南景蘭) 父는 규택(圭宅) 1965년8월18일生(陰4월28일) 안동대학교 졸업

三十世 子 宗佑 종우
1971년12월28일生(陰7월10일) 서울예대 졸업
配 상주박현윤(尙州朴玄允) 父는 재화(在華) 1972년2월

三十世 子 尚甫 상보
1977년12월13일

29世 희섭 가족사진

三十一世 子 德基 덕기
1992년12월28일生(陰12월5일)

三十一世 子 王基 왕기
1995년6월11일生(陰5월14일)

三十一世 女 採媛 채원
2002년7월14일生(陰6월5일)

三十一世 女 序沇 서연
2005년11월2일生(陰10월1일)

"실시간으로 쉽게 볼 …

한글 · 한자가 병기된 「인터넷대동족보」

2월 10일(음력 1월 1일) 음력설에 맞춰 개통된 청주한씨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해 본 전국의 많은 일가들은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족보를 쉽게 볼 수 있어 너무나 좋다"는 반응이 많다. 제3차 편찬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각 종파회장들과 광역시 · … 검색…

감사공파 임원들이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陽命중앙회 상임고문, 權洙감사공파회장, 忱감사공단위장학회장, 뒷줄은 근준(오른쪽), 億(왼쪽)일가.

참판공파 동환(31세손)회장이 아들 진만일가와 함께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안양공하 중추공파 갑동종중(회장 상용) 상배(32세손) 총무가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상배일가는 갑동종중의 수단신청을 독려하고 주도했다.

검교참판공파 영수회장(윗쪽 · 원내 사진)이 종파 임원들과 함께 개통된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세마공파 … 학년)와 …

볼 수 있어 너무 좋다”

족보」 어른 · 젊은이들 모두에게 큰 인기

언제
광역

시 · 도종친회장들, 각급 임원들과 많은 일가들이 검색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종파와 지역종친회에서는 검색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다. 다음은 중앙회에 보내온 검색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인천광역시 창섭회장(가운데 · 원내 사진)이 일가들과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창섭회장은 인천, 강화 일대를 순회하면서 1천여명의 수단신청을 유도했다.

대구 · 경북종친회 희섭회장(뒷편 상단)이 어린 자손들과 함께 음력설을 맞아 개통된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세마공파 連東(29세손 · 원내 사진)회장이 아들 연근일가, 외손자(인재훈 · 초등학교 5학년)와 함께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몽계공파(회장 영수) 상옥 총무가 손자 · 손녀들과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손자 · 손녀들은 처음보는 「인터넷대동족보」에 큰 흥미를 보이고 있다.

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검색 요령

① 「인터넷」주소창에서 www.cheongjuhan.net를 입력하고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청주한씨중앙종친회를 검색하면 홈이지 주소가 안내 됩니다.

② 화면의 여러 항목중에서 「인터넷대동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대동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연결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에 전화 (02-720-63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도 위의 요령과 동일합니다.

충성공파(회장 鮮敎 · 원내 사진) 相根(32세손)일가가 아들 인규군과 함께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이양공파 용진회장(가운데)이 기석사무총장(오른쪽) 등 임원들과 「인터넷대동족보」를 검색하고 있다.

"「한글인터넷대동족보」는 시대적인 요청"
"CD족보는 불편하고 비용도 더 든다"

吉洙 회장

吉洙회장, 성동·광진구총회서 강조

서울특별시 성동 · 광진구종친회 吉洙회장은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구의동 소재 대추골 가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종사문제, 특히 여러 일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보다는 객관적이고 대국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 소극적인 일부 일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지금 족보편찬사업에 심신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益洙고문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곧 그 성과가 우리 앞에 전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주변의 아는 일가분들에게 빠짐없이 수단신청을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이다. 만일 이번 기회에 누락될 경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후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낙오되지말고 꼭 참여하는 것이 선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승지공파 회장과 서원군파 문중의 친목모임인 서정회 회장을 맡고있는 吉洙회장은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대동족보」에 약 4만명이 신청하여 올해 음력설에 맞춰 전면 개통한다고 하니 아직 수단신청을 하지못한 일가들에게지금이라도 수단신청을 하면 접수를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앙회가 주관하는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을 우리 한문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문간공파와 서원군파에서 불참하겠다고 결의하여 양파 종원들의 수단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현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吉洙회장은 특히 양대파에서 이미 CD파보를 만들었기에 「인터넷대동족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하루가 멀다고 우리 가정내에는 수시로 여러 양상에 변수가 생기고 있는데 이때마다 이를 주관하는 종파 사무실에 가서 변동사항을 CD에 입력시켰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CD를 구매하여 가내에서 작동을 시켜야 마땅한데 수시로 발생하는 변수 마다 CD에 올릴 수도 없거니와 또 올렸다고 한들 올리기만 하여서는 하등의 효과도 실감도 나지 않는다. 오로지 이를 비치하여 그때마다 기계에 넣고 이를 돌려봐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변동사항을 입보할 때마다 수단비와 CD구매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인터넷」방식은 CD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한 단계 업한 제도임으로 「인터넷대동족보」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교, 설명했다.

「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서

편찬팀 임원들 주도적 역할

陽命고문

益洙고문

사진 왼쪽부터 편찬팀의 基虎도유사, 駿錫편찬소위원장, 중앙회 백춘부회장, 成龍부회장, 星燮부회장, 相容부유사, 뒷줄은 鍾仁상무

중앙종친회가 수년간의 각고끝에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인터넷대동족보」를 개통하기까지는 각 종파와 광역시 · 도종친회 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수단신청에 적극 참여한 일가들의 기여도 많았지만, 편찬사업을 이끌어온 陽命고문, 益洙고문, 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백춘부회장, 成龍부회장, 星燮부회장, 相容부유사, 鍾仁상무 등 편찬팀 임원들의 주도적 역할이 컸다.

편찬팀은 6월 중에 감사공 문중, 대구 · 경북종친회 등 8개지역, 7월 중에는 문간공 문중, 청운회 등 11개 지역, 8월 중에는 회양공 문중, 울산광역시종친회 등 3개 지역, 9월 중에는 판서공송산종중 등 7개 지역, 10월 중에는 충남종친회, 서울특별시종친회 등 3개 지역, 11월 중에는 제천시종친회, 세종특별자치시종친회 등 7개 지역을 순방했으며, 순방 후에는 수시로 중앙회 회의실에서 평가회의를 개최, 사후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相容부유사(副有司)는 수단신청 기간 중 거의 혼자서 접수업무를 감당하는 격무를 치렀으며, 후반부에 들어 청장년회 회원인 到榮(33세 · 충성공파)일가가 相容부유사를 도와 자원봉사를 했으며, 중앙회 鍾仁상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

한편 편찬팀 임원들은「인터넷대동족보」개통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피력했다.

▲陽命중앙회 상임고문 겸 편찬팀 고문 : 우선「인터넷대동족보」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은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으나 甲洙회장이 이 일을 이어받아 전력을 다해 편찬위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의 시 · 도종친회를 찾아「인터넷대동족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한 결과 4만여명이 수단을 신청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을 진행하면서 쉴 새 없이 각 종파와 시 · 도종친회를 순방, 수단신청을 홍보하고 독려해온 편찬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駿錫편찬소위원장 : 시조 태위시(諡) 위양공 휘 란(蘭)의 후손 17세손 통정대부 행 서원(西原)현감 孝仲선조가 1617년 족보 초교를 편찬 간행한 이래 396년만에「인터넷대동족보」를 편찬 · 개통하게 되었다. 편찬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으나 종원들은 물론 각 종파회장, 각 지역회장, 편찬위원의 일치단결로 성공리에 전면 개통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基虎도유사 :「인터넷대동족보」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많은 일가들이「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시조 할아버님(휘 蘭)의 후손으로서「우리는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명문거족으로서 그 위상의 유지발전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인터넷대동족보」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백춘중앙회부회장 : 25년 이상 종사에 참여해 왔지만「淸韓閣」건립에 이어 청주한씨 최초의「인터넷대동족보」개통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인터넷대동족보」의 개통에는 甲洙회장의 추진력과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편찬팀의 일원으로서 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한 모든 일가분들에게 감사한다.

▲成龍중앙회부회장 : 원로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지난 10여년간 세일재 보수공사,「淸韓閣」건립공사 등 미력이나마 보필하여 큰 보람을 느껴왔지만 편찬팀의 일원으로서 이번의「인터넷대동족보」개통에 한층 더 큰 보람을 느낀다.「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계획되고 있는「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도 성공적으로 간행되기를 바란다.

▲星燮중앙회부회장 : 역경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인터넷대동족보」를 개통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인터넷대동족보」는 우리 후손들에게 뿌리를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겠다. 우리의「인터넷대동족보」가 기능면에서나 디자인면에서 국내 성씨 중 최고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相容부유사 :「인터넷대동족보」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한씨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방의 명문거족이다.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인터넷대동족보」에 수단을 신청하지 못한 일가들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속히 수단을 신청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접수 마감 후 1월에도 수단신청 잇달아
문양공파 2,452명 등 7,000여명 수단 접수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인터넷대동족보」에 등재될 수단 접수기간이 지난해 11월 말에 일단 마감되었으나 2013년 1월 중에도 7,000여명의 수단이 잇달아 신청되었다.「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 益洙(전 6교대동족보 도유사)고문의 주도하에 문양공파에서 1월 31일 2,452명의 수단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문정공파(회장 동학)에서 1월 15일에 383명, 정당공파(회장 동석)에서 1월 31일에 210명, 공안공파에서 1월 11일에 172명, 판관공파(회장 基仁)에서 1월 15일에 133명, 감사공파(회장 근수)에서 1월 23일에 93명, 안양공파(회장 상훈)에서 1월 31일에 64명을 각각 신청했다.

한글 · 한자 병기「인터넷대동족보」개통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 마감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말까지 구축 완료
③ 2013년 2월 중순 음력설에 맞춰 전면 개통
④ 2013년 9월 한가위에 맞춰 보책 발간 예정

- 「한글인터넷대동족보」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
- 「한글인터넷대동족보」는 후손들이 원합니다 -
- 명문의 족보에 올라야 명문의 후손이 됩니다 -

◉지난 2010년 8월 제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미완(未完)상태로 개통된 「인터넷대동족보」는 2012년 6월 편찬사업을 재개하여 2013년 1월 말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제1단계 편찬사업 때 누락된 일가들의 수단 접수를 2012년 11월 말까지 마감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2월 중순 음력설에 맞춰 개통하였습니다.

◉편집이 완료된 「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 2013년 9월 중순 한가위(추석)에 맞춰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단 신청을 하지 않은 일가들께서는 「인터넷대동족보」에서 누락되었으며, 2013년 9월 한가위에 맞춰 발간할 예정인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譜冊)에도 등재될 수 없습니다.

◈ 「한글인터넷대동족보」 검색 요령

① 인터넷」주소창에서 청주한씨중앙종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 (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② 화면의 여러 항목중에서 「인터넷대동족보」라는 항목을 '클릭' 하면 「인터넷대동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연결되지 않으면 중앙종친회에 전화 (02-720-63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중앙종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도 위의 요령과 동일합니다.

◈ 우리 '한글인터넷족보'의 주요 기능과 특징

① 직계 · 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국 · 한문을 병기,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④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⑤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 수단금은 다음과 같이 접수했습니다.

◉수단비는 1인당 12,000원 입니다.

◉1건 기준 50인 이상 단체로 신청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30% 감액됩니다.

◉종파회장은 유사(有司)가 되며, 입보, 교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 수수료는 1매당 12,000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은 10cm X 15cm=4인치 X 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한글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종친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한글인터넷족보' 수단지에 기재된 내용들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 2월 15일 생, 1980년 2월 15일 졸.

(2) 학력 · 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 · 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폄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 · 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를,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요.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종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①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②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 비해 단점이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③ 인터넷족보는 국내외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있어야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④ 인터넷족보는 CD가 없어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⑤ 인터넷족보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頒帙)된 후에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⑥ 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아 족보에 등재할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⑦ 인터넷족보는 제작기간이 짧다. 수단 접수 후 짧게는 몇일 이내에 자기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종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 있다.
⑧ 인터넷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없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⑨ 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프린터로 출력하여 새로운 보책(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불가능하다.
⑩ 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하여 판매하면 일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단비를 내는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⑪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향후 점차적으로 쇄퇴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CD를 이용하는 CD족보도 사라지고 인터넷족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켓이 완전히 없어졌고, 3.5" 디스켓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